

고흥·울진, 지방권 최초로 신규 국가산단 예타면제 신속 추진

- [고흥]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8개 기업 입주협약 체결
- [울진] 효성중공업 등 6개 기업 입주협약 체결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3월 26일(화) 오전 서울역에서 **고흥, 울진** 신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**전라남도**(도지사 김영록), **경상북도**(도지사 이철우), **고흥군**(군수 공영민), **울진군**(군수 손병복), **한국토지주택공사**(사장 이한준) 및 국가산업단지 입주 희망기업들과 입주협약식을 개최하였다.
- 이번 입주협약식은 비상경제장관회의(2.14)를 통해 발표된 ‘고흥·울진 국가산업단지 예타면제 추진’과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 시 대통령 지시 사항인 ‘고흥 국가산단 예타면제 적극 추진’의 후속조치이다.
- 관할 지자체와 기업 간 체결로 수요 확보의 의미만 갖던 통상적인 입주 협약과 다르게, 이번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주협약식을 주재하여 입주수요 확보,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업단지계획 수립, 지자체의 지원사항을 한 번에 다루었다.
 - 뜻깊은 자리를 빛내기 위해 김영록 전남도지사, 이철우 경북도지사, 공영민 고흥군수, 손병복 울진군수,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함께 참여하였다.
- **고흥 우주발사체**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전남 고흥군 봉내면 예내리 일원에 약 52만평 규모로 조성되어 우주발사체 관련 업종에 특화할 계획이다.
- 이번 입주협약식을 통해 발사체 제조 관련 **한화에어로스페이스(주)**, **(주)비츠로넥스텍**, **(주)이노스페이스**, **동아알루미늄(주)**와 전기·통신장비 제조 관련 **(주)세일엑스**, **(주)더블유피**, **(주)우리별**, **(주)파루** 등 총 8개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하였고, 우주발사체 산업의 선봉장으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.

○ 이를 통해 고흥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‘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*’ 중 발사체특구로서 한 축을 담당하여,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우주발사체 산업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우주산업 밸류체인 상 중요한 발사체(전남), 위성(경남), 연구·인재(대전)을 3개 특구로 지정하여 핵심 분야별 집적화를 통한 우주역량 강화 추진(22.12, 국가우주委 의결)

□ 울진 원자력수소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에 약 48만평 규모로 조성되어 원전 활용 수소 생산에 특화할 계획이다.

○ 이번 입주협약식을 통해 수소 저장·운송·활용 관련 효성중공업(주) 등과 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관련 GS건설(주), GS에너지(주), 롯데케미칼(주), 비에이치아이(주) 등 총 6개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하였고, 원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의 중심으로 거듭날 예정이다.

○ 이를 통해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울진 내 풍부한 원전에서 발생하는 열과 무탄소 전력을 활용해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특화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며, 동해안 수소 경제벨트*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울진(수소생산) - 동해(수소저장·운송) - 삼척(수소기업육성) - 포항(수소연료전지)

□ 국토교통부는 입주협약을 통해 기업 수요를 확보한 만큼, 향후 국무회의 의결 및 공공기관 예타 면제 확인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거쳐 연내 예타면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산업단지 조성은 단순 부지조성을 넘어서 규제개선, 기존 거주민 보상 및 이주 등 이해관계자 설득, 기업 유치, 도로·용수·전력 등 인프라 적기 연계 등을 총망라하는 고난도의 행정 종합예술로, 5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국토교통부가 주도하여 산업 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○ 또한, “고흥, 울진 국가산단은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중 지방권 최초로 추진하는 예타면제 산단으로 국가경제 및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산업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하며,

- “나머지 12개 국가산단도 예타를 신속히 처리(7→4개월)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을 신속히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”고 덧붙였다.

담당 부서	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민태 (044-201-3674)
		담당자	사무관	조계환 (044-201-3677)
		담당자	사무관	홍남경 (044-201-3695)



참고1

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개요

□ 사업개요 ※ 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동 가능

위치	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일원	사업시행자	LH(70%)+ 전남개발공사(30%)
면적	173만㎡(52만평)	유치업종	우주발사체 산업 및 관련 발전·통신 산업
사업기간	'23~		

□ 개발구상 :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강국 도약 “우주발사체산업” 혁신 거점

- 나로우주센터,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(과기부) 연계
“우주발사체 국가산단” 조성 추진
- 연소시험시설, 민간발사장 등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인프라 구축
- 우주발사체 관련 앵커·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적극 유치

□ 위치도



참고2

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현황

□ 사업개요 ※ 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동 가능

위치	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	사업시행자	LH(60%)+ 경북개발공사(40%)
면적	158만㎡(48만평)	유치업종	원전 활용 수소 생산 및 수소 저장·운송·활용
사업기간	'23~		

□ 개발구상 : 원자력을 활용한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특화단지 조성

-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로서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 활용 수소 생산
-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조성* 및 수소·전력 다사용 기업 유치
 - * 앵커기업에 더해 R&D·생산·운송·저장·연료전지 등 전주기 기업 유치 추진
- 수소 활용 기간산업 연계 및 동해안 수소 경제벨트 강화
 - * 울진(수소생산) - 동해(수소저장·운송) - 삼척(수소기업육성) - 포항(수소연료전지)

□ 위치도

